

 금융위원회	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	 금융감독원	
보도		배포 시부터 즉시		배포	2016.8.24.(수)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유 재 훈(02-2156-3300)	담 당 자	윤 송 이 사무관 (02-2156-3334)
	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장 박 은 석(02-3145-5550)		이 해 봉 부국장 (02-3145-5570)

## 제 목 : 16.8.24 서울경제(A8면) 「금융개혁 혼연일체 금가나」 제하의 기사 관련

### < 보도 내용 >

- ☐ '16.8.24(수)자 서울경제(A8면) 「『금융개혁 혼연일체』 금가나」 제하의 기사에서
  - 금융위가 불공정거래조사와 관련하여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는 DB를 공유하지 않고 **별도로 DB구축작업을 진행중**이어서 양 기관이 협조를 하지 않고 **중복된 업무를 두고 불필요한 경쟁**을 하고 있다고 보도

### < 사실 관계 >

- ☐ 자조단 자체 DB구축은 **자조단 출범 3년**이 넘어 그간의 사건처리 결과와 향후 사건처리 내용을 **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정부차원의 불공정거래 사건관리 시스템 마련**이 필요해져서 추진중인 사안
  - 자조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하여 자체인지 사건, 한국거래소에서 통보된 사건 등을 분류하여 **자조단이 자체조사하거나 금감원에 조사 위탁** 등을 하고 있으며

-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이러한 자체 조사 사건 및 위탁사건의 처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
- 아울러, 새로 구축되는 DB는 자조단의 **조사 기법을 향상**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탑재도 예정되어 있어, 자조단의 **자체 사건조사 능력도 향상**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☐ 금감원도 자체의 사건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**금감원 자체 처리 내용만을 담은 시스템**이며,
  - **별개의 조직**이고 **물리적으로 분리**되어 있는 자조단과 금감원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은 **현실적으로 불가능**
  - 현재도 자조단과 금감원은 **사건분류**를 통해 중복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**수시로 협의하고 관련내용을 공유**하고 있으나
    - 만약, 자조단이 금감원의 시스템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면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**자조단이 금감원의 조사내용을 감시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**이 생길 우려
- ☐ 참고로 자조단 출범 이후 사건 처리일수가 감소\*하였으며, 조사·심리기관협의회, 관계기관 실무자협의회 운영 등을 통하여 **관계기관간의 협력이 강화**되고 **미착수 사건이 축소\*\***되는 성과를 보임

\* (조사단설립이전) 223일 → ('13.9월~'16.6월) 126일 : 평균 97일, 43.5% 단축

\* 조사대기 사건 : ('12말) 75건 → ('16.6월말) 57건